

# 사회심리학 이론의 문화특수성 :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 규 석

전남대 심리학과

사회심리학이 다루는 현상 및 이론들이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권의 특수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문화권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잘못이다. 본고는 교환현상, 정서표현, 사회적 동기의 발현, 자기제시현상, 사회비교, 귀인의 편향, 인지일관성 동기의 제 현상이 어떻게 문화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관련연구와 추론을 통해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고려해야 할 점을 제언하였다.

사회과학이 다루는 현상과 이론들이 문화적, 역사적 제한성을 갖는다는 것은 오래전에 지적이 되었고 (Berlin, 1976) 특히 사회심리학 이론이 지닌 제한성은 1970년대에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며 (Gergen, 1973 ; Schlenker, 1974 ; Sampson, 1978)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Pepitone & Triandis, 1987). 일군의 사회심리학자들은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교하며 심리학의 제반 이론에 문화특성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학회에 가담하여 비교문화심리학술지가 간행되고, 이러한 연구성과를 일단 정리한 핸드북 (Triandis & Lambert, 1980)이 간행된 바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를 통털어서 사회심리학의 보고장이라고 해도 좋은 미국에서 출판된 십여종이 넘는 사회심리학 개론서에서 문화특수성이 깊이 있게 다루어진 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에서 출판된 수종의 사회심리학 입문서 (전병재, 1986 ; 정양은, 1981 ; 정철수, 1985)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심리학의 교재들이 다루는 다양한 주제에도 불구하고 문화차이를 조명하는 주제들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많은 원리들이 凡문화권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보편성 (universalism : Schlenker, 1974)에의 믿음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듯 하다. 이같은 믿음은 사회심리학 연구를 함에 있어서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그대로 차용하여 경험적, 수량적 분석을 우선으로 취하여 방법론의 엄격성을 제일로 추구하게 만들었다. 이같은 접근 태도는 자연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 결과의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주로 문제삼는 관행을 초래하였다 (Aronson 등, 1986). 전형적인 실험실에서는 독립변인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상황이 철저히 통제되고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종속반응이라는 제한된 형태의 변수에 나타낼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서는 문화라는 것이 독립변수로 채택되는 일이 없다. 이같이 문화적 영향요소가 완전히 탈색된 상황에서 관찰된 변수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은 超문화권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연구가 특정 문화권에

서 주로 이루어지면서 이 문화적 배경이 전혀 고려되어 지지 않으므로 해서 실질적 사회행동의 설명으로써 제한적 가치만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문화차이가 반영될 수 있는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문화권에서 국한되어 적용되어야 할 이론들이 범문화권적으로 그릇 적용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Gergen, 1973; Pepitone, 1981; Sampson, 1977).

본고는 한국인의 사회심리가 갖는 독특성을 연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구체화하고 연구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한 문헌고찰이다. 그러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에서 중요한 이론, 법칙, 현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갖는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같은 의문은 최근들어 활발해진 비교문화 심리학의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것들로 일부가 Markus와 Kitayama(1991)에 의해서 잘 정리된 바 있다. 본고의 논의는 이들의 정리에 힘입은 바가 크며 70-80년대의 비교문화 심리 연구들을 정리하는 하나의 틀로써 제시된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검토(한규석, 감수중)와 관련성이 깊다. 본고에서는 사회심리학 이론이 갖는 문화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선 문화특수성이 매우 자명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이론에 반영되어있는 교환이론을 다루고, 보다 보편적 현상 및 이론으로 여겨지던 것들에 대한 문화특수성을 조명 한 후 한국인의 사회심리학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려해야 할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 교 환 법 칙

대인교류는 사회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서 주목을 받아 사회적 교환 이론이(Homans, 1961; Kelley & Thibaut, 1978; Thibaut & Kelley, 1959) 일찌감치 성립하여 이 분야의 연구를 이끌어 왔다. 형평이론은(Adams, 1965; Walster, Berscheid, & Walster, 1976) 이 분야 연구의 주요성과로서 여겨지고 있는데 이 이론은 분배행위를 지배하는 법칙은 형평의 원리이며 형평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분배행위는 형평원리의 변형일 뿐 별개의 분배원리로서 파악하기를 거부하였다(Walster 등, 1976).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Lerner, 1977; Reis, 1984; Sampson, 1975 등) 형평원리를 보편적 원리로서가 아닌 여

러개의 원리중의 하나로써 보는 시각을 발전시켰다.

가장 많이 연구된 분배의 원리는 형평원리(기여한 만큼씩 차지하기)와 균등원리(기여도와 무관하게 똑같이 차지하기)이다. 분배의 법칙에 대한 연구들을 리뷰한 후 몇몇 학자들(Pepitone & Triandis, 1987; Sampson, 1975)은 형평분배는 대인관계가 과제중심적, 경쟁적, 개인주의적인 경우에, 균등분배는 사회정서적 측면, 협동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취해진다고 요약하고 있다. 이는 즉 형평분배는 교환관계에서 작용하며 정의적 관계에서는 다른 분배원리가 작용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Thibaut & Kelley(1959)의 교환이론은 교환관계 문화에서 적절하며 정의적 관계문화(대부분의 집단주의문화)에서는 그 설명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Lee, 1990).

분배행위의 동서문화 차이를 조명한 연구들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필요의 원리(Berman, Murphy-Berman, & Singh, 1985: 인도와 미국의 비교)나 균등의 원리(Leung & Bond, 1984: 홍콩과 미국의 비교)가, 서양 문화권에서는 형평의 원리(Walster 등, 1976)가 지배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배행위를 연구한 Leung과 Park(1986)은 분배원칙의 결정이 교류의 목적에 따라서 변하는 현상은 두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즉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형평원리를,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균등원리) 한국인들은 균등원리를 쓰는 분배자를 형평원리를 쓰는 분배자보다 더욱 호의적으로 평가함을 발견했다. Leung과 Bond(1984)는 미국의 대학생이나 홍콩 대학생이나 모두 형평분배를 선호하고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분배결과가 실험자에게 알려지는 상황(public)에서는 균등분배가 홍콩 대학생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남을 보였다. 이는 대학생들이 갖는 개인주의적 특성이 동서 공통으로 나타나지만 행위를 규제하는 타인의 눈이 갖는 효과가 양쪽 문화권에서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홍콩인들은 내집단 동료에게 균등분배한 것은 외집단 동료에게 균등분배한 것보다 더 공정한 것으로 여기는 반면, 미국인들은 내외집단 관계없이 형평분배를 공정한 것으로 여김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문화차이 현상은 추후의 연구(Leung & Iwawaki, 1988)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때 재확인되지 못했다. 그 이유로서 연구자들은 응답자들이 보인 개인성향 점수가 미

국, 일본(한국은 해당자료 없음) 응답자에게서 거의 차이가 없게 나타났음을 들고 있다. 한편, 사용한 집단주의-개인주의 척도의 만족스럽지 못한 신뢰도도 지적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Bond, Leung, & Wan, 1982)에서 한 성원이 보이는 집단의 유지(화합)와 산출에의 기여도를 조작하여 홍콩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에게 제시하고 그 성원을 평가하게 했을 때 양문화권 모두에서 기여도의 지각은 동등하게 파악되었지만 분배 행위에서는 홍콩의 학생들에게서 기여도의 차이가 덜 반영됨을 보였다. 유사한 연구절차를 적용하여 미국, 일본, 한국의 대학생들이 주인공에게 내리는 평가를 분석한 연구(Kim, Park, & Suzuki, 1990)에서도 비록 준형평원리가 세나라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의 대학생들은 기여도의 차이를 반영하는 정도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덜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 문화권에서 보상을 결정짓는 요인은 기여도 이외의 다른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같은 연구결과는 불형평의 지각에 미치는 요인뿐만 아니라, 불형평 상황에 처했을 때 보이는 행동에 있어서도 문화권 간의 차이가 있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국내에서 분배형태(필요, 형평, 균등)의 지각에 미치는 동료와의 친숙도, 동료의 딱한 사정요인을 연구한 결과, 상대방과 친숙한 조건에서는 소원한 조건에서 보다 불형평적 분배가 초래하는 불만이 적음을 보였다(장성수, 1984). 아울러 상대방이 딱한 형편에 놓여있을 경우 자기에게 불리한 분배에 대한 불만이 적은 것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결과가 우리 문화권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장성수는 일의 상황에서의 차이가 아니라면 불형평의 효과가 훨씬 더 강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불형평효과 연구는 불형평의 지각요인을 주로 관심있게 보았으며(박희량, 박세영, 1989; 장성수, 1984, 1985), 불형평의 회복행동을 본 연구에서는 회복책을 한가지(차후과제의 수행)만 제시하고서 이 과제에서 이전보다 더 할 것인지, 어떤지를 점검하였고(장성수, 1987) 다른 연구(박희량, 박세영, 1989)에서는 회복책으로써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들을 인지적인 것과 행동적인 것으로 크게 구분하여 분석하므로 해서 행동적 대안들의 선택에서 나타나는 문화차이의 조명이 간과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서 불형평 회복책

에서 나타나는 한국인의 특성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분배현상의 연구는 문화차이를 조명하기 보다는 분배라는 보편적 현상의 지배원리 및 상황의 특성을 구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박세영, 1988; 박희량, 박세영, 1989; 장성수, 1984, 1985, 1987). 더우기 연구의 피험자들은 모두 대학생들(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임; 한성열, 안창일, 1990)이었기 때문에 문화차이를 탐구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했다. 최근에 국민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기여가 높은 상황을 제시하고 사탕 10개를 분배하는 각본을 제시했을 때 전체의 75.4%가 균등원리를 채택하였다(박덕후, 1991)<sup>1)</sup>. 아울러 이 아동들은 형평원리를 택한 각본의 주인공은 약삭빠르고, 불공평하고, 자신만 아는, 불공평한 사람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있는 것은 도시아동들에게서 형평원리를 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농촌 아동들에게서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산업화가 진전된 사회에서 더욱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이론(Berry, 1967)에서 본다면 우리사회에서도 도시인들이 농촌인보다 더욱 개인주의 성향을 보이는 간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한편 아동을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배원칙의 선호도를 알아본 각본 실험(박봉순, 1992)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의 아동들이 개인주의 성향의 아동보다 균등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화차이를 조명하는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틀이 문화권내의 성향에 따른 행동차이를 설명하는데 쓰일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Fiske(1990a, 1990b)는 대인관계의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서 네가지 틀을 제시하였다. 시장의 거래관계(market pricing), 서열관계(authority ranking), 대등관계(equality matching), 정의적 공유관계(communal sharing)가 그것인데 문화마다 대표적인 틀을 배당하여 문화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네가지 틀

1) Hook와 Cook(1979)은 형평분배가 가능하려면 최소한의 산수능력이 전제되어야함을 주장하면서 분배현상의 연구를 리뷰하고서 분배원리의 채택은 발달단계에 따라 변함을 보였다. 즉 어려서는 이기적 원칙, 국민학교 수준에서는 준형평원리를 중학교 이상에서 형평원리가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문헌고찰은 박덕후의 연구에서 나타난 균등원리의 선호현상이 문화특수적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을 하나의 문화권에 모두 적용시켜 대인관계의 양상을 분석해 볼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그녀는 네가지 분배의 틀이 각기 독특성을 지니고 있음을(incommensurable) 강조하는데 이같은 주장은 Mills와 Clark(1982)이 제시한 관계의 두가지 틀-교환관계와 정의적 관계-을 포함한 진일보한 견해라고 볼 수 있다. 각 문화권에서 지배적인 틀이 무엇이며, 그 틀이 지닌 특성, 적용되는 상황의 분석 및 비교에 관한 연구가 요망되며, 특히 교환현상을 연구시 우리 문화권이 보이는 특성의 구명에 착안한 연구가-post hoc 설명이 아닌-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정서의 경험과 표현에 있어서 문화차이

심리학자와 대부분의 인류학자들은 인간의 감정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정 상황에 대한 선천적인 생리적 반응경험으로 보고 있으나(McClelland, 1985) 단지 그 기본적 정서의 종류가 무엇들이나에 있어서 논의를 벌이고 있다(Izard, 1979). 비록 정서의 경험종류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이라는 가정도 도전을 받고 있지만(Solomon, 1984) 여러 인류학자들의 연구는 문화권에 따라 주된 정서경험과 그 표현의 능숙성, 그리고 정서와 관련된 부수행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인류학자들은 특히 정서의 표현에 있어서의 문화차이를 많이 연구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남태평양(발리, 타히티, 사모아)과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자바 등)등 관계의 화목함을 중히 여기는 문화권에서는 내집단의 화목을 깨트리거나, 불협화음을 초래 할 수 있는 정서(분노, 적개심, 폭력적 정서)의 표현은 매우 통제되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내보이는 사람들은 조롱당하거나, 큰 수치를 느끼게 되며, 동물과 같은 짓을 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Hollan, 1988). 심지어 Utkaeski모들은 분노할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나(Briggs, 1970; Solomon, 1984), 최근에 Hollan(1988)은 인도네시아의 Toraja부족의 관찰에서 이들이 분노를 자주 경험하지만 이것을 간접적으로 표출시키는 방법을 발달시켰음을 보고하므로써 분노의 결여가설을 부정하고 있다.

정서는 사람들이 타인과의 교류상황에서 경험되며 이 교류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사회심리학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Markus와 Kitayama(1991)은 정서를 자기중심적 정서와 타인중심적 정서로 구분하고 분노, 좌절, 우울감, 공포, 비애, 기쁨을 전자에 분류하고, 동정심, 수치심, 화목을 후자로 분류하는 한편, 자기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기중심적 정서의 표현이,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타인중심적 정서의 표현이 발달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Matsumoto 등(1988)은 미국과 일본 대학생들에게서 여러 가지 정서가 경험 되어지는 강도를 조사하였는데 미국인들은 일본인에 비해 기쁨, 슬픔, 분노, 공포, 수치, 혐오 등의 감정을 더욱 강하게 경험하고 정서의 표현이 특수한 몸짓거리 따위를 수반하는 경향이 큼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미국인들은 각 정서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일본인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Markus 등(1991)은 앞 연구에서 조사된 정서가 수치, 죄책감을 제외하면 모두 자기중심적 정서이므로 미국인들이 그같은 정서에 보다 민감히, 강하게 반응하고, 그 정서에 걸맞는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많고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는 일본인들에게서는 자신의 내적정서 보다는 상황적 맥락이 중요성을 띠는 것으로 학습, 사회화가 이루어져 내적인 감정에 민감히 반응하지 않음을 보이는 증거로 해석하고 있다. 이같은 해석은 다른 연구(Matsumoto, 1989)에서 지지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문화의 성원들은 사진의 인물이 보이고 있는 정서(분노, 슬픔, 공포)의 강도를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덜 심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흥미있는 것은 관계 문화권(=집단주의 문화권)의 성원들은 얼굴표현을 보고서 그 사람이 행복한지(내면적으로) 아닌지를 판단해 내는데 훨씬 서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관계 문화권에서 보이는 웃음, 미소 등은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기능을 하므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의 내면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본인과 서구인들에게 “우울증”(depression)이란 단어를 제시하고 연상되는 것을 분석한 연구(Tanaka-Matsumi & Marsella, 1976)에서 서구인들은 “슬픔” “절망” “메랑꼬리” 따위의 자기정서와 관련된 것을 연상하는 것이 전형적인 반응인데 일본인들은 “폭풍”

“구름” “산” 등 외부의 대상을 연상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것을 일본인들의 경우 외부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정서를 개인화시키는 것을 회피함으로써”(p.290) 스스로를 독특한 존재로서 부각시키지 않고 소속집단으로부터 유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려는 문화적 특성 탓임을 주장했다.

관계의 문화권에서 자기중심적인 부정적 정서(분노, 적개심, 공포 등)를 강하게 표출하는 것은 분위기를 크게 파괴하므로 매우 기피되는 정서이다. 미국과 일본에서 11개월된 아기들을 상대로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엄마가 조건에 따라 「즐거움, 화남, 또는 두려움」을 표출했을 때 아이가 장난감에 접근하는 행동을 취하는 데까지 경과 시간을 비교한 연구(Miyake 등, 1986)에서 유독 「화남」 조건에서만 문화차이가 나타났는데 일본아기들은 45초가 지나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 아기들이 18초만에 움직인 것과는 큰 차이로서 엄마의 화남 모습을 일본 아기들이 접하는 것이 매우 드물다는 것을 시사한다. Matsumoto 등(1988)은 일본인의 분노의 표출은 내집단 성원간에 매우 금기시되어 있으며 대체로 타인(외부인)을 대상으로 나타내며(Hollan, 1988), 미국인의 경우 분노의 상대방은 외부인보다는 내집단 성원임을 발견했다. 유사한 증거로 분노하게 된 상황을 생각나는대로 기술케 했을 경우 중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벌어진 사건(“버스에서 젊은 놈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을 드는 경향이 미국인보다 높았으나 스스로에게 발생한 사건(“친구가 약속을 어김”)을 드는 경향은 낮게 나타났다(Stipek, Weiner, & Li, 1989).

이같은 논의와 관련시켜 우리 문화의 특성을 보면 강한 정서의 외적표현은 매우 억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강한 내면정서의 표현은 예외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미소(微笑)를 띠는 것이 적절하며, 흥소(笑)나 대소(大笑)를 하는 것은 “얼굴을 깨다”(破顔)하여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여겼다. 옛부터 우리는 표정의 근엄함을 잃지 않기를 강조했는데 이는 무표정에 가까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김성태(1990)는 한국에서의 성숙인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시도에서 유교의 敬사상을 선비들이 따르고 추구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敬이란 마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태파악이나 일처리에 적정성을 잃지 않아서 당면

한 일에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상태이며 先人들은 이를 추구하고 이에 어긋나는 행실을 금기시하는 수양의도를 실생활에서 실천하려 했다. 마음의 안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서상태를 통제하고자 한데서 우리 민족의 정서통제가 연유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같이 과격한 정서의 표출을 어리석은 일로 여긴데 더해서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기 보다는, 특히 그것의 표출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때는 내부에서 곱삭이는 것이 장려되었고<sup>2)</sup> 이것은 우리민족의 독특한 정서라고 여겨지는 ‘한’으로 응축된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에 시도된 연구(최상진, 1991a)에서 한 많은 사람들은 다정다감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은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고 보겠다. 즉 다정다감하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표현이 억제된 생활을 많이한 사람들에게서 한이 서린다는 인식이다. 인식과 실체가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보는 연구가 요망된다. 이같은 논의가 합당하다면 우리문화에서는 대인 관계의 특성을 가름하는 중요한 증거로서 정서의 표현정도가 쓰일 수 있다. 즉 표현 양상을 연구해 보면 교류중인 두사람의 상대적 신분, 친밀도를 알 수 있으며, 귀인이론(Kelley의 가산모형등)을 적용시켜볼 때 상황에 걸맞지 않는 정서의 표출은 표출자의 내심, 의도 등을 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2) 분노의 직접적인 표현을 타부시키는 속담이 여럿 있는데 다음은 그 예이다. : “돌을 차면 제 발부리만 아프다” “성내어 바위돌 차면 제 발등만 아프다”. 다음의 속담은 분노의 치환적 표출을 꼬집는 것들이다. : “시어미에게 역정나서 개 옆구리 찬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가서 눈흘킨다” “다리 아래에서 원을 꾸짖는다”. 훨씬 더 많은 속담들이 속을 드러내놓는 말을 하는 것을 경계해주는 언어풍속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말은 없을수록 좋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은 적다” “말많은 집에 장맛이 쓰다” “빈수레가 시끄럽다” “웃으면서 한 말에 초상난다” “살은 쓰고 주울 수 있어도 말은 하고 못 준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혀아래 도끼있다” “밭없는 말이 천리간다” “소에게 한 말은 소문 안나도 아내에게 한 말은 소문난다”. 한편 말을 잘하는 것을 높이 사는 속담으로는 : “입은 비뚤어도 말은 바로 해라” “좋은 밥 먹고 헛소리 한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말 잘하는 아들이 일 잘하는 아들보다 낫다”. 언어행위에 관한 여러 속담을 분석해 보면 우리들은 다언 보다는 소언, 침묵을 높이 사고, 바른 말, 정직한 말 보다는 잘하는 말, 가려서 하는 말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최상진 1990b ; Choi, 1991 참조바람).

이다.

## 사회적 동기의 문화차이

사회적동기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흔히 성취동기, 유친동기, 권력동기의 세가지를 중요한 것으로 꼽는다 (McClelland, 1985). 이들 세가지 동기의 문화특수성은 우선 각 동기의 의미가 문화권마다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논의할 수 있고 둘째 동기의 유형 및 강도가 문화권 간에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e)

성취동기는 McClelland에 의해 이론화되면서 동서양의 많은 나라들에서 그 이론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성취동기는 과제를 보다 잘 수행해 내려는 욕구에서 주어진 여건, 자신 등을 적절히 통제하는 과정, 행위에 잘 나타난다고 본다. 비록 성취동기가 어느 민족에서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단지 민족에 따라 그 보편적인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일을 보다 잘 해낸다」라는 의미는 문화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남에게 의존하거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상황을 통제, 극복해 내어 과제를 잘 수행해내는 것이 서구적인 성취 개념이라면 관계 문화권에서 성취는 자신의 자율성을 제한하더라도 사람들과, 상황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주어진 현실을 수용, 개선하는 것일 수 있다(Weisz, etal, 1984).

Blumenthal(1977)은 중국의 아동문학의 분석에서 성취관련 주제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 이타행위의 주제가 많이 나타남을 보였다. 한국의 아동용 교과서에서도 성취관련 주제가 많이 나타나는데(안신희 등, 1991 참조), 이같이 관계 문화권에서도 강하게 나타나는 성취동기는, 하지만, 나의 성취를 위함이라기보다 내집단의 성취를 위함이거나, 주위(특히 내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는 면이 많음을 지적할 수 있다. Yu(1974)은 중국 아동들에게서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가족주의적 성향과 효성심이 높음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성취가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면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Schwartz & Bilisky(1990; Lanham, 1988)가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체가 자립, 자유와는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가치이지만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그같은 갈등이 적은 것을 발견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Wagatsuma(1956; Gallimore, 1981에서 재인용)는 재미 일본인 교포 제1세대, 일본인 교포 2세대, 일본의 시골 주민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TAT검사를 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그림 2에 대한 미국인들의 성취관련 주제는 주인공 여아의 개인적인 성취이며 가족의 성취는 거의 언급되지 않으나 일본인들에게서는 부모를 위한 강한 성취와 관련된 주제가 더욱 많았다. Minoura(1975; Gallimore, 1981에서 재인용)는 1920년대와 1970년대 사용된 일본과 캐나다의 교과서의 내용분석을 하였는데 1920년대의 일본 교과서의 경우 집단주의 관련 주제가 강하였으며, 50년이 지나서 이 경향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캐나다의 경우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Minoura는 특히 일본의 성취지향 특성이 타인에 대한 지향성 때문에 나타남을 발견했다. 즉 캐나다 교과서에서는 성취행위가 목표지향성을 많이 띄며, 타인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성취 지향적이지 못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타인 지향성이 성취 지향성과 정적인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문화차이에 착안한 Yang(1982, 1986)은 성취동기를 개인지향적인 것과 사회지향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개인 지향적 성취동기는 개인이 자신의 내적 표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애쓰는 기능적으로 자율적인 욕구를 말하며, 사회지향적 성취동기는 가족등의 내집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내집단이 설정한 표준을 달성하려고 애쓰는 욕구를 말한다. 따라서 사회지향적 성취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일단 목표가 달성되면(즉 내집단의 기대에 부응하면) 더 이상 강열한 성취지향적 행위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나 국내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 까지의 공부량과 합격 후의 공부량의 현격한 차이에서 일화적 증거를 볼 수 있다.

한편 이들에게서는 내집단의 기대의 변화는 그에 맞춘 성취 지향행위의 강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새로운 내집단을 발견하게 되면 이들은 또 그 내집단의 표준을 달성하기 위한 성취행동을 보일 것이다. 이 내집단의 표준설정, 기대는 내집단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아버지, 교수, 관리자) 나타나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활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바치는 정성은 대학내의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수준에 비례할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논리를 직장내에서의 성취 관련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

다. Hayashi(1988; Markus 등, 1991에서 재인용)는 일본에서 30년간에 걸친 횡단적인 연구에서 일본인들의 80%가 아버지와 같은, 즉 공적으로 규정된 업무 이외의 것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문제에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는 유형의 관리자를 서구식의 업무분위의, 즉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적인 일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일을 시키고 감독하는 관리자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 선호경향은 남녀, 교육정도, 연령, 사회 계층간의 차이가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하급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만큼 공사를 불문하고 돌보아 주는 유형의 지도자가 과체나, 계층(대학생, 블루칼라층, 화이트칼라층)에 관계없이 가장 효과적임을 보이고 연구도 있다(Misumi, 1985; Markus 등, 1991에서 재인용). 이같은 경향은 미국에서 지도력의 효율이 지도자 특성과 과제유형, 근로자특성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contingency이론(Fiedler, 1978)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다. 아마도 이같은 차이는 문화차이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즉 관계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에게 강한 업무추진 활동을 보이게 하는 것은 지도자에 대한 개인적 애착과 의무감이므로 과제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

### 친화동기(Affiliation motive)

친화동기는 타인과 어울려 지내고자 하는 동조적이고 의존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이다(Mehrabian, 1970). 이것이 높은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하지 않도록 그들과의 갈등을 피하고, 상대의 의견에 동조하며, 협조하는 등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려고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문화비교를 할 때 흔히 집단주의 문화를 개인주의 문화보다 친화동기가 강하다고 가정하였다(cf. Gallimore, 1981). Markus 등(1991)도 그들의 「상호의존-독립적 자기」이론을 적용시켜 볼 때 상호의존적 관계문화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 유지하려는 동기(존경, 흥미, 유친, 부양, 의존, 비난감소, 겸양 등)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이 이같은 가정에 회의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테면 일본문화는 집단주의 문화이므로 동조성향이 높으리라는 단순한 논리를 Asch의

동조 실험 방식으로 점검한 Frager(1970)는 미국인들의 1/3 정도가 동조행위를 보인데 반해서 일본인들의 1/4정도만이 동조행위를 보임을 관찰했다. 동조현상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이 명확하고 규범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는 논리를 적용시켜 규범이 불명확하고 처벌도 안따르는 실험실의 특수상황 탓으로 낮은 동조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다(Triandis 등, 1988). 그러나 Matsuda(1985)는 일본의 경우 준거집단의 종류에 따라 동조압력이 크게 차이남을 주목하여 친구집단, 실험실에서 친숙해진 집단, Asch의 표준 집단의 세 집단으로 준거집단을 구분 조작하여 Asch 유형의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친구집단에서의 동조는 미국인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Asch 표준 집단에서는 미미하게 나타남을 보였다. 이는 문화의 특성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하는 연구들이 왕왕 해석하기 어려운 모순된 자료를 보여준다는 좋은 예이다.

흥미있는 것은 관계문화의 사람들이 별나게 친화동기가 강한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관계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관계에 신경을 쓰는 면이 강하면서도 친화동기가 서양 문화에서 보다 유달리 높지는 않게 나타나는 이유는 두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는 관계문화에서는 새로운 관계의 구축보다는 기존관계의 파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는 점이다. 한국사람들은 서구인들에 비해서 낯선사람과 교류를 하는 것이 매우 서툴다. 고속버스에서 오랫동안 옆구리를 서로 붙이고 가는 상황에서도 두사람간의 대화가 없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연회장에서도 주최측은 끼리끼리 사람들을 앉혀야만 연회가 흥겹게 진행되지 그렇지 못할 경우 애써 차린 잔치가 곧 끝장이 남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 문화권보다는 서구 문화권에서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품이 더욱 환영을 받고, 그러한 행위가 갖는 의미,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Triandis, 등 1988). 한편 한국인들은 낯선 타인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에 쓰는 관심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기존관계의 유지에 쏟는다. 상대방이 내집단인 경우에 보이는 행동의도가 훨씬 친밀하며(한규석, 1989; Han & Choe, 1990),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이동들은 타인과 갈등이 생길 때 상대가 내집단 성원일 경우 자신의 뜻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거(박봉순, 1992)는 모

두 한국인에게 있어서 친화욕구는 그 대상이 내집단 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들이다. 차재호와 정지원(1990)은 한국판 친화욕구 점수<sup>3)</sup>와 다른 동기와의 관련성을 보았는데, 타인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공포가 클수록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낮음을 보고했다. 이 연구에서 측정된 성취동기가 통상 그러 했듯이 개인적인 능력에 의한 서구적인 성취라고 한다면 이 결과는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여겨지는데 서구적 개념의 성취가 내집단 성원과 떨어질 소인이 된다는 인식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 대상에 대해서 보이는 친화동기에서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둘째는 친화동기와 친애동기(intimacy need)를 구분할 때(McAdams, 1980), 관계 문화권에서는 친애동기가 강하다는 증거가 있다(Wheeler, Reis, & Bond, 1989). 즉, 관계 문화권에서의 교우관계는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보다 장기적이며 내밀한 것으로 부담이 크다. 이같은 교우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친애동기가 높은 사람들의 특성이며, 친화동기와는 구별되어 진다.

### 권력동기

권력동기는 주위 인물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기이다(Winter, 1973). 이같은 동기는 지위나, 신분이 높아지거나, 많은 "하급자"들(부하, 학생이나 환자들)을 접할 수 있는 경우에 충족될 수 있다. 관계 문화권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동시에 위계적 질서가 공고한 사회이다(Hofstede, 1980). 이 문화권에서의 대인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보다 많이 발생하고 더욱 중요성을 띤다. 두사람의 교류가 나이, 지위, 역할을 떠나서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서 성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위계의 설정은 당사자들의 거의 모든 교류양상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수평적인 관계의 면이 중시되며, 위계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도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높은 지위의 선망, 신분상승의 욕구는 관계 문화권에서 매우 강력하며 우리민족의 일상생활의 저변에서

많이 표출되고 있다. 임신출세, 부귀영화는 모두 감투를 함으로써 가능하며, 공부하는 것도 기실은 성취보다는 임신출세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최재석, 1987, 3장 참조바람). 심지어 혼례식에서 신랑의 예복은 관복이며, 무당의 예복도 관복과 비슷한 것 등은 그같은 권력동기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김영규, 1991, pp.72-77). 이러한 분석에서 볼 때 권력동기의 강도는 관계 문화권에서 보다 강하게 표출될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대인교류에서의 자기제시 현상

Goffman(1959)이 대인교류상에서 안면세우기(face-work)의 중요성을 적출해낸 이후 이것은 범문화적인 현상으로 여겨졌다. Goffman에 따르면 대인교류중의 모든 사람들은 안면(즉 남에게 보이고 싶어하거나 보이기 싫어하는 자기모습)에 관심을 크게 갖고 있다. 통상 상대방의 안면을 위협하는 행위는 금기시되며, 부득이 할 경우 안면에 손상이 안가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Brown과 Levinson(1987)에 따르면 남에게 하는 부탁은 상대방의 안면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명령조("문 좀 달아주세요"), 둘째는 부탁하는 것(positive politeness: "우리 문 좀 달는 것이 어떨까요?"), 셋째는 정중히 부탁하는 것(negative politeness: "문을 달아 주실수 있습니까?"), 넷째는 간접적으로 뜻을 전하는 것("어휴, 이방 춥네요")이다. 어떠한 방식이 취해지는가는 상대방과의 친밀감, 지위의 차이, 행위의 강제성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문화권에 따른 차이가 있을 여지를 가정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성원간의 거리가 비교적 큰 사회(즉 위계 문화권)는 부탁조의 문화권이고, 그 거리가 적은 사회(즉 개인주의 문화권)는 정중한 요청의 문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화자들 간의 지위관계를 조작한 여러가지 각본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서 감이 울에게 다양한 행위를 부탁하는 어투를 변화시켜 제시하면서 각 어투가 얼마나 그 상황에서 쓰일 것인지, 또 얼마나 공손하게 여겨지는지를 삼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게 한 연구(Holtraves & Yang, 1990, 실험1, 2)는 문화권에 관계없이 안면 세워주는 것은 깊은 관심사이며, 어떠한 어투가 더욱 안면을 세워주는가에 있어서는 한국, 미국간의

3) 차재호는 이 척도의 이름을 친애욕구 척도로 지었으나 필자는 친애라는 단어가 affiliation 보다는 intimacy에 가까우며, 이들은 구분시켜 보아야 한다는 주장(McAdams, 1980)을 고려하고, 아울러 사회심리학용어집(1985)의 권장에 따라 affiliation을 친화로 이름지었다.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흥미있는 발견은 한국인들이 공손한 어투를 미국인보다 선호하고 명령조의 요청을 더욱 불손한 것으로 여기는 듯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Brown 등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 연구는(실험3) 양문화권에서 상대방 지위가 떨어질수록 사용되는 어투가 공손성을 잃어간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의 공손성의 문화차이 이론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간의 교류가 봉착하는 문제점들을 적절히 지적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Cohen, 1987). 그러나 Brown 등의 이론의 비교문화적 연구가 아무리 지지적인 증거를 제시해 준다고 할지라도 이론이 지닌 설명력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기 쉽다. 공손함(politeness)이라는 이론적 용어가 중요한 것은 개인과 개인의 대등한 만남에서 서로간의 지위, 친밀감의 역학관계가 정해지기까지 관계를 유지하며 관계가 정립된 후에도 상대방의 인격, 안면을 존중해 주는데 필요한 예절(etiquette)이기 때문이다. 대인관계의 기반에 대등한 인격체 간의 교류라는 철학이 깔려있으며 서로간의 지위, 권력에 있어서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Hofstede, 1980) 그러한 차이가 통제하는 영역이 비교적 좁게 규정되는 문화권에서 “공손”이 갖는 의미가 크다. 서구문화에서 나타난 예절은 흔히 잘 모르는 사이의 관계를 원만히 진행시키기 위해 지켜지거나 범하지 말아야 할 행동양식을 많이 규정하고 있다. Matsumoto 등(1988; Stipek 등, 1989)의 연구에서 일본인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은 대부분이 외인(낯선이)인 반면 미국인들은 그 대상이 내인(가족, 친구)임을 보이는 것은 분노가 공손과는 반대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면에서 이같은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

서구에서는 공손한 어투를 쓸수록 그 사람이 점잖은 신사로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과공은 상대를 놀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거나, 깊은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로 여겨져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닐 것이다. 즉 한국 문화권에서는 “공손”이란 걸로 드러난 행위만을 뜻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는 부적절하며, 포괄적인 의미로서는 “겸양”이 적절하다고 보겠다(최상진, 1991b, 1991c). 우리사회에서는 교류상대들이 대등한 인격체로서 교류를 지속하기 보다는 상대적 지위를 규정하므로써 서열을 정하고 그 서열의 차이에

걸맞은 공손함을 취할 때 비로서 관계가 원만히 진행된다. 겸양이 넘치거나 부족한것 모두가 예의가 아니며(非禮), 신분관계에 맞추어 적절하지 못한 경우 그 관계는 심화되지 못하며 단절되기 쉽다. 한국 사회에서는 신분관계에 의해 써야하는 말(반 말, 존대말), 어투, 할 수 있는 행동 등이 엄격히 규정되고 있으며 이같은 제약은 특정의 생활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모든 관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같이 서열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서 우리네들은 상대방의 공손하지 못한 어투의 사용을 용납할 수 없고(Holtgraves & Yang, 1990), 상대보다 아래의 서열이 매겨질 가능성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유사한 분석을 안면세우기(face-saving)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안면세우기는 우리문화에서의 체면세우기와는 구분되어진다(최상진, 1991b, 1991c). 안면은 상대방이 나와 대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거나 또는 내가 누구에 못지않은 개성을 지닌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대인교류의 자기제시 전략이다. 서양문화권에서 이 안면세우기는 지위의 고하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여겨지며 우리말의 낮, 낮짝, 염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문화권에서의 체면은 사회적 신분에 의해 행사되며(양반체면은 있어도 상놈체면은 없다.<sup>4)</sup>), 체면세우기에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체면을 손상시키거나 권위를 실추시키며, 체면에 무관심하면 체통, 위신, 지체가 떨어진다. 체면은 누구누가 다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위, 신분이 높은 사람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현상이다(최상진, 1991b). 서양에서의 안면이 행위자의 적극적 행위에 의해서 지켜지고, 주장되는 성격인면이 강한데 반해 우리문화에서는 주위사람들에 의해 세워지거나, 유지되는 면이 더욱 강한 듯 하다.

이같은 주장은 서구의 이론가들이 정리한(Jones &

4) 우리속담에는 양반체면에 관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예로서: “비지국 먹고 용트림한다” “양반이 물에 빠져도 개헤엄은 안친다” “양반 못된 것이 장에 가 호령한다” “양반은 죽어도 질붙은 안 쪼인다” “닷새를 굶어도 풍잠 멋으로 굶는다” “물먹은 배만 튀긴다”. 다음의 속담은 격에 맞지 않는 체면치레에 대한 풍자이다: “상놈이 구레나룻이 다 무엇이나?” “의붓아비를 아비라 하라?”

Pittman, 1982) 자기체시 전략의 면모들의 검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이(각주5 참조) 행위자의 명시적인 행위에 의해서 지키고자(또는 세우고자) 하는 자신의 면모가 유지되는 것이다. 반면 우리 문화권에서 체면이란 행위자의 애매한 몸짓, 또는 표현(“에헴”)을 보고 주위의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모시는” 행위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이러한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버릇 없는 놈, 후레자식으로 치부되어진다.

## 사회비교 현상의 문화차이

Festinger(1954)의 사회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을 파악하고자 하는 존재이며 이러한 파악은 자기와 유사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이론의 초점은 개인과 개인에 놓여 있어 개인주의 문화의 특색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같은 자기비교에 대하여 Bandura(1986)는 규범에의 비교, 특정 타인에의 비교, 자신의 이전 행위와의 비교를 구분하고,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자기의 평가는 소속집단의 성취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와 자신의 기여가 집단의 표준에 어떻게 비교되는지에 의해 이루어짐을 주장하므로써 문화차이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p.348). 이같은 생각을 보다 구체화한 LeVine과 Moreland(1986)는 자신의 파악은 Festinger가 명시한 자기-타인의 비교에 더해서 자신의 과거행위(자기-자기) 및 자기집단과 타집단(집단-집단)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주장했다. 이들은 집단-집단 비교가 나타나기 쉬운 상황으로 “집단간 경쟁, 집단간 상이성, 집단간 지위의 차이 등으로 집단소속감이 두드러졌거나(Brewer, 1979), 집단간 비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회적 정체감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Tajfel, 1978),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자기집단의 못났음을 보이하고자 할 때(Austin, 1977; Patchen, 1961)” 등을 꼽고 있다(p.289).

5) Jones와 Pittman은 자기체시전략을 적극적인 것과 방어적인 것으로 구분 정리하고 있다. 적극적인 전략으로는 아부, 위협, 축은(supplication : 축은하게 보이는 것), 자기고양(self-promotion), 모범(exemplification)을, 방어적 전략으로는 사과(excuse), 합리화, 변명(apologies), 철타기(disclaimer : 상대방에게 모진 일을 하면서 자기를 나쁜놈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의사표현), 자손(self-handicapping)을 들 수 있다.

한편, Goethals & Darley(1987)는 개인의 수준에 적용되는 Festinger(1954)의 사회비교 이론을 확장시켜 집단수준의 현상에도 적용되게끔 수정 제시하였다. 즉 이들은 Tajfel(1978)의 사회정체감 이론을 수용하여 개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단순히 평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긍정적인 정체감을 얻고자 노력하며, 이러한 자긍심은 스스로의 개별적인 평가의 우월성 뿐만 아니라 소속집단이 받는 평가가 우월할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이론의 전개는 사회비교 이론의 틀을 확대시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의 비교현상을 파악하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 문화권에서 개인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출신, 배경, 출신학교, 소속집단의 명성 등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 개인의 현재 행위 및 업적이 갖는 상대적 중요성이 관계 문화권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권 보다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즉 업적이 못지않게  $\Delta$ 대 출신,  $\bigcirc$ 의 문하생 하는 것들이 평가시 중요성을 지닌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Tajfel의 사회정체감 이론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그 유용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이론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집단이 갖는 의미가 서양보다는 동양에서 훨씬 더 강한 정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Choi & Choi, 1990a). 「우리」라는 명사는 매우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으나 한국적 정서를 표상하는 「우리」(I-disappeared we-ness)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집단인지, 그 집단에서의 행위규범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때 한국의 파당정치, 연고집단 행위, 집단이 기주의 등의 심리적 기제를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비교 현상과 관련시켜 논할 수 있는 흥미있는 현상은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 현상이다. 이는 집합적으로 일을 할때 개인들이 보이는 산출은 개인적으로 일을 할 때보다 떨어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 현상의 구체적 분석이 여러 연구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결론은 집합적 상태에서 개인의 기여도가 실험자, 동료, 자신에 의해서 평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결론짓고 있다. 개인이 집합적으로 일을 할 때 자기집단의 평가가 다른집단과 비교되어 진다면 비록 개인의 기여도가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긍심의 고양목구에 의해 사회적 태만현상이 불식되어질 수 있다. 최근에 Harkins & Szymanski(1989)는 개인의 기여도를 알려주는 상황 이외에 집단의 총산출이

타집단과 비교 평가되어지는 상황에서는 이 태만현상이 나타나지 않음을 실험으로 보이고 있다. 집단 정체감이 갖는 의미가 훨씬 큰 관계 문화권에서 사회적 태만 현상의 발현 유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이론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귀인의 편향

행위자가 보이는 행위에 대한 원인귀속은 행위자에 대한 태도, 미래의 교류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사회심리학의 중요한 주제이다. 60, 70년대에 이루어진 많은 귀인 연구들은 인간의 귀인양상에 몇가지 독특한 편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같은 편향은 문화권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 근본귀인오류

Ross(1977; Nisbett & Ross, 1980)는 귀인 현상의 두 가지 편향을 논의하면서 이들이 보편적인 현상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 하나는 근본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FAE)로써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행위자의 성격, 특성, 책임등으로 내 귀인시킨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FAE가 개인주의 문화에 특수한 현상일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다(Markus & Kitayama, 1991; Miller, 1984). 즉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행위자의 자율성과 개인적 책임을 중시하므로 사람들은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키며, 그에 대해서 무언가 말해줄 수 있는 내적요소를 찾아내려는 경향이 강해서 FAE가 나타나지만(Sampson, 1977),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사회적 행위는 주변상황, 상대방의 위치, 행위자의 사회적 역할등에 의해서 개인의 의향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Triandis, 1990). FAE의 문화 특수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한 연구는 대만의 학부모든 미국의 학부모보다 “학과목의 수행능력은 누구나 모두 같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을 얼마나 하는 가이다” 등의 진술문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여주었다(Lee, Ichikawa, & Stevenson, 1987; Stipek 등, 1989에서 재인용됨). 또한 중국인들은 아동이 산수에 낙제하였을 때 이를 노력을 안한 탓으로 돌리지만, 미국인들은 소질, 능력이

없는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중국인들은 아동이 산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목표를 더욱 상향 조정하는 경향인 반면 미국인들은 상향 조정없이 잘했다는 보상과 격려를 하는 경향이 더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Hess, Chin-Mei, & McDevitt, 1987). 이는 중국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평가시 가변적(unstable) 요소인 노력을 안정적(stable) 요소인 능력, 성격보다 더 비중을 준다는 증거이다.

FAE에서 내외귀인의 양상을 직접 비교한 연구에서 Miller(1984)는 여러 연령층(8, 11, 15세)의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의 최근 행위 중에서 친사회적인 행위와 반사회적 행위를 기술하고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하게 한 후 이 귀인을 분석한 비교문화 연구를 하였다. 흥미롭게도 미국과 인도의 아동들에게 있어서 귀인양상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성인들에게서 많은 차이가 나타났는데 친사회적 행위를 보는 시각에서 미국인들은 내귀인을, 인도인들은 상황귀인을 시키는 경향이 보다 높았으며, 이같은 차이는 반사회적 행위를 보는 시각에서는 좀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즉, 사회화가 진행될수록) 두드러지는 귀인의 차이현상과 아울러, 인도인들 중에서도 유령물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FAE를 더욱 보이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Miller는 문화적 배경이 FAE의 중요 결정요소임을 보였다. 이 현상은 각본상에 제시된 행위자의 경솔한 행위에 대한 귀인에서도 유사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같은 문화차이는 국내에서도 FAE의 발현 정도를 재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뜻한다.

### 자기고양 편파

또다른 편향은 자기고양 편파(self-serving bias)로 「잘한 것은 내탓, 못한 것은 상황탓」으로 돌리는 현상이다. 이 편파는 자신의 자존심을 고양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해서 귀인에서 잘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미국인들에 있어서 과제에서 성공이라는 피드백을 받을 경우 미국인들은 자신의 능력, 실력이 좋은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Weiner, 1985).

능력 귀인에 있어서 자기고양 편파는 서구문화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러 연구들(Goethals, 1989; Marks, 1984; Wylie, 1979;

Schwartz & Smith, 1976)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이 열등한 것으로 나타날 때 이러한 정보에 대해 미심쩍어하며 추가적인 정보를 구하는 욕구를 가짐을 보여주었다. 이 현상에 대한 분석은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잘한 사람과의 비교를 피하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내리는 평가가 자기에게 유리한 귀인을 하게 만드는 것을 보여 주었다(Pyszczynski, Greenberg, LaPelle, 1985). 이 연구는 과제를 수행후 성적을 조작하여 그 성적이 타인들과 비교시 잘한 것 또는 못한 것이라는 정보를 제시하였다. 이 정보와 함께 피험자들에게 이전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행성적 카드를 6개씩 제시하면서 이들 참여자들의 성적이 피험자들의 성적보다 높거나, 같거나, 낮게끔 조작하고서 더 많은 사람의 성적을 알고 싶으면 요청하라고 하고서 추가로 요청하는 카드의 수를 종속변수로 삼아 집단간 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성적이 나쁘면서 6명의 성적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날 때는 아무도 추가요청을 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성적이 나쁘지만 6명의 성적이 자신보다 더 나쁠 경우 최다의(평균 4.9장) 카드를 추가로 요청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편파적 자료 모색의 경향이 사회비교에서 나타날 때 사람들은 최소한 자존심을 영위시키거나 고양시켜주는 자료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일본에서 행한 비슷한 연구들에서(Takata, 1987; Wada, 1988; 두연구 모두 Markus 등, 1991에 요약됨)는 피험자들에게 기억능력을 측정한다는 과제를 수행시켰다. 과제 수행후에 자기들의 성적과 다른사람들의 성적을 제시하면서 이들의 비교에서 피험자가 우월하거나 열등하게끔 조작을 하였다. 종속변인으로는 자기능력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 느끼는 신뢰감과 다른 사람들의 성적(추가정보)을 알고 싶어하는 정도이었다. 결과를 보면 일본인들은 자신의 성적이 좋지않게 나왔을 때는 그 평가에 대해 더욱 신뢰하고, 더이상 추가정보를 찾지않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이 좋게 나왔을 때는 그 평가 결과에 미심쩍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같은 경향은 겉허하게 보일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나타났다. 즉 피험자가 “상대방”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는 상황은 물론, “상대방”을 컴퓨터로 대처하였을 때도 나타났다.

Shikanai(1978)는 일본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과제

에의 실패, 성공 피드백을 조작한 후 피험자들의 귀인을 분석하였는데 실패는 노력의 부족으로 성공은 과제의 용이한 탓으로 여기는 경향편파가 나타남을 보였다. 문화비교 연구에서 Fry와 Ghosh(1980) 또한 캐나다 거주 백인과 아시아 아동(귀화인)에게 과제를 시키고 성공, 실패 피드백을 조작하여 귀인을 비교한 결과 백인은 자기고양 편파를 보였으나, 아시아계는 겸양 현상(성공→운, 실패→내탓)을 보였다. 이같은 겸양현상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위장된 것으로 자기제시 전략으로 나타날수 있다. 한 연구(Riess, Rosenfeld, Melburg, & Tedeschi, 1981)는 서구인들의 자기고양편향이 자기제시의 전략인 면과 실제의 현실지각의 면 모두에 의해 나타남을 보인 바 있다. 즉, 서구인들은 개인의 능력이 다른 것들에 우선해서 개인의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능력을 바탕으로한 자존심의 고양욕구가 강하며 남에게 내어보이는 자기의 모습도 실력있는 유능한 모습이기를 바란다.

관계 문화권에서 나타난 자기고양 편파의 반대현상<sup>6)</sup>은 사람들의 자존심이 낮거나, 없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보다는 특출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자존심을 유

6) 관계문화권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그 확실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틀테먼 Stipek 등(1989)의 연구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취상황의 각본을 제시하고 성취에 대한 귀인양상을 비교했을 때, 두 문화권에서 모두 노력과 능력이 자기 행위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침이 나타나 관계문화에서는 능력보다는 노력이 더 중요한 준거라는 가설은 지지될 받지 못하였다. 오세철(1982, pp. 337-351)은 귀인에서의 자기고양 편파가 서구식의 개인주의, 자기의존주의(self-reliance) 토양에서 나타남을 주장하고 한국의 「덕분」, 「탓」이 모두 결과된 일에 대한 타인(내집단의 성원)의 책임을 반영하는 말임을 들어 귀인양상이 다를 것임을 주장했다. 이를 검증한 각본 실험 결과(대학생 대상)는 예상과 달리 자기와 친구의 행위의 귀인에서는 자기고양 편파가 많이 나타났다. 이같은 증거는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학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는(Hess 등, 1987) 달리 나온 결과들은 관계문화권의 대학생이라는 계층이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한성열, 안창일, 1990) 이같은 가치관의 추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 인용된 일본에서의 연구들이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고려할 때 연구방법의 차이 또는 일본과 한국의 문화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자기고양편파의 발현에 대한 문화권 차이는 단정적이지 못하며 특히 관계문화권에서의 많은 경험 연구가 절실히 요망된다.

지하는 경향이 낮은 까닭이며 자존심의 유지가 내집단과의 관계속에서 내집단 성원들에게서 능력을 인정받고 못 받고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존심의 근거가 개인주의 문화에서 처럼 스스로의 능력의 탁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와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며 존경받고 사는 것이라면, 관계 문화권에서는 겸양현상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 우리는 재능을 비아냥거릴때 “잘하면 무엇해, 누가 알아주나!” 하는 말을 자주 한다. 즉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즉 타인이 아닌 내집단 성원-알아주고 못하고에 의해 그 사람의 평가가 좌우되며, “모난 돌이 정 한번 더 맞는 다”라는 속담도 증빨나게 두드러진 능력의 소유자는 질시, 도함의 대상이 되기 쉬움을 의미한다는 뜻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개인의 독자적인 성취에 대한 문화권의 평가가 결코 호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집단의 성패의 귀인에 있어서는 자기고양 편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같은 논의는 자기고양 편파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긍심(self-esteem)이 갖는 의미 및 그것을 느끼는 상황에 있어서 문화차이를 밝혀야 하는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미국인들에게서 자긍심(pride)은 성취와 관련된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 역량을 높게 평가 받았을 때 느끼는 정서이며 이 경향은 중국의 대학생들에게서도 나타났다(Stipek 등, 1989). 그러나 문화차이를 추론한다면 동양인들은 남에게 혜택을 가져다 준 성취에 대해서 강한 자긍심을 느낄 것으로 볼 수 있다.

## 인지일관성 동기 (Cognitive consistency motive)

인지일관성 이론, 인지부조화 이론 등은 사회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이론으로 여겨졌으며 두 가지의 인지체계가 상충될 경우 이의 조화를 위한 행위, 사고, 태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 요체이다. 동양 문화권의 연구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인지 일관성 동기는 항상성있는 자아의 모습을 견지하려는 문화적 배경에서 두드러진 현상이 시시된다.

즉,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내면적 태도, 신념보다는 개인의 역할, 지위, 의무 등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자기의 사적감정, 태도 등은 생활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통제될 수 있어야 하므로, 일본에서는 자기의 내면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덕이지 그것을 표출하는 것은 덕이 아니다(Doi, 1986). 서구사회에서 사적자와 공적자아 간의 차이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반면, 일본사회에서는 이 둘사이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사적 자아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개인이 규범에 따르는가(적합한 공적 자아를 보이는가)가 중요시됨을 지적하고 있다(Doi, 1986; Iwao 1988). 타인을 대함에 있어서 결과 속이 다른 행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적절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Iwao(1988; Markus 등, 1991에서 재인용)의 연구에 의하면 한 시나리오상에서 딸이 이민족 사내를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아버지가 그들의 결혼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들의 결혼을 괜찮다고 말하였다는 상황을 제시 하였다. 이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 미국인들의 2%가 적절했다고 생각한데 반해 44%의 일본인은 적절한 행위라고 보았다. 한편 48%의 미국인은 아주 안좋은 것이었다고 응답한 반면 9%의 일본인만이 그 같은 대답을 하였다. 이같이 반대하는 태도를 지닌 결혼 이지만 상대방에게 ‘괜찮다’라고 했을 때 서구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조화에 의해 내심의 태도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일본인들도 상응하는 태도변화를 보일 것 이라는 예측은 지나친 일이다. 오히려 역할에 충실하면서 타인에게 해나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의 규범에서 볼 때 남들도 충분히 그같은 행동을 이해할 수 있으며, 행위자도 스스로를 정당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Bharati(1985)는 인도인의 ‘나’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바로 모순의 수용임을 지적한다. 인도인들은 아무 갈등없이 마르크스주의자이고 파시스트이고 힌두교도일 수 있는데 이러한 구현(具顯)이眞我が 아니라 物我(material self)이기 때문에 이 물아는 부분적이며, 상황적인 것으로 요소간의 모순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같은 논의는 인지일관성의 강도 및 인지부조화에 대한 허용도 및 그것이 부조화 감소 행위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있어서 동서문화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암시한다.

## 한국사회의 토착적 현상 (Indigenous phenomena)

지금까지 서양의 사회심리학 원리들이 명시적 또는 함축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같은 논의는 사회심리학의 개념, 이론들을 도입하여 한국사회에 적용시킬때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점과 제한점들을 들추고 있다. 사회심리학이 한국사회의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개발된 이론 이외에도 우리 문화권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다루는 이론, 연구들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심리학자들이 한국적 심리학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이같은 시도를 크게 두가지로 묶어볼 수 있다(조금호, 1990 참조바람). 첫째는 동양고전에서 논하는 심리학적 주제들을(敬, 심성, 4단7정론, 理氣論) 현대 심리학의 발견과 결부시켜 재해석하거나 고전의 명제를 심리학적으로 개념화시켜 도입하거나, 차이를 비교하는 시도(김성태, 1990; 정양은, 1970; 조금호, 1990; 한덕웅, 전경구, 1990)이다. 이같은 시도는 고전을 들추므로써 한국적인 것을 찾아낸다는 면에서 토착심리학의 정립을 위한 이론 중심적인 "위로 부터의 모색"(top-down search)이라 하겠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상을 중심으로 파악해 가는 "아래로 부터의 모색"(bottom-up search)이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한국인의 사회행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면서, 한국사회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토착적인(indigenous) 현상에 대한 심리학적 개념화 및 실증적 자료의 수집등이 시도되고 있다. 이같은 시도는 문화적 행위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경험적 자료들이 비교적 가용하며, 토착적인 개념의 제공으로 문화현상을 피상적인 수준에서 비교해서는 파악되지 못하는 면이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므로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해 많이 시도되고 있다.

각각의 문화권의 성원은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 문화내에서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같이 문화권마다 사회적 현상을 만들고 그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틀을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 Harre, 1984; 최상진, 1990a 참조바람)이라 한다. 이 표상을 파악하지 못할 때 관찰자들은 영문을 알 수 없는 현상을

접하게 된다. 동서양의 문화차이를 또는 표상의 차이를 파악하는 유용한 하나의 틀로써 제시된 것이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Triandis, 1990; 한규석, 감수중)이며, 일본의 문화적 표상을 이해하기 위한 요체 개념으로써 Amae(Doi, 1962), Ie(家; Nakane, 1970) 등이 제시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우리 문화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정서로서 한(恨; 최상진, 1991a), 정(情; Lee, 1990, 최상진과 최수향, 1990a), 자기제시현상으로서 "핑계"(최상진, 임영식, 유승엽, 1991) "눈치"(최연희, 최상진, 1990; Choi & Choi, 1990b) "체면"(최상진, 1991c; Choi & Choi, 1991), 대인교류 현상으로써 "우리"(차재호, 1991; Choi & Choi, 1990a), "연고주의"(한규석, 1989) 등이 심리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이들 연구들 중에서 한국인의 사회적 행위가 갖는 독특성을 문화적 맥락속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이 최상진과 그 동료들에 의해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우리」가 갖는 의미가 서구에서의 「We」와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문화비교 자료를 통해 분명히 밝혔고(Choi & Choi, 1990a; Choi, Kim, & Choi, in press), 「우리」의 근저에 있는 심리적 표상은 「정」으로써 한국인의 "우리성은 곧 합리적인 혹은 공식적 관계속의 우리나라 서구적 사태상황적 동질성에 기초한 우리가 아닌, 탈합리적, 인간적관계속에서 정을 바탕으로 한 개인간의 인간지향적 연계단위" (최상진, 최수향, 1990a, p.7)이며, 「정」이란 대인관계를 특성화시키는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우리네들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문화적 표상일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흔히들 말하는 우리네의 「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을 이해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기실 이것에 대응하는 서구의 개념을 발견하기란 어려운데 우리의 대인관계가 갖는 특징들은 정의 다양한 표현으로 의미가 전달된다. 「비정한 관계-정다운 관계」 「정이 깊은 관계-정이 얇은 관계」 「떨어진 정-떨어야 될수 없는 정」 「미운정 고운정 다든 사람」 「인정머리 없는 사람」 「정이 안드는 사람」 「무정한 사람」 등의 표현들은 두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이건 들은 사람간의 관계는 정이 안든 사람과의 관계와는 확연히 구분되어진다. 정이란 서구에서의 우정관계의 발달에 필요한 접촉이상의 것이 있어야 형성되는 것으로

로 (최상진, 최수향, 1990a) 사회적으로 중요한 대인 교류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서 사회심리학자들이 주목할 가치가 매우 크다. 그 가치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심리학적 연구가 최근에야 시도되고 있음은 만시지탄이라 하겠으며 비록 그 주제가 전통적인 실험실 연구의 적용을 어렵게 한다고해서 기피되어 지거나 도외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결론

앞에서 필자는 기존의 사회심리학의 중요한 원리들이 개인주의 문화의 토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지적해주는 연구들을 살펴 보았다. 그동안 즐기차게 있어왔던 사회과학 이론의 보편성 및 문화적 제약에 대한 논의 (Gergen, 1973; Sampson, 1978)에서 강조되어왔던 문화적 토양이 지니는 중요성을 이제 좀 더 가시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실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한에 있어서 우리는 한국인의 심리를 이해할 수 없거나 국부적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의 문화, 사회심리를 논함에 있어서 주체의 대열에 당연히 서야 할 사회심리학자들이 그 자리를 언론인, 국문학자, 정신의학자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현상은 오늘날의 “사회심리학이 기본적으로 개인적 시각을 유지하고 과정분석(process analysis)에 치중함으로써 사회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사회심리학에서 얻는 지식이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별로 쓸모 없는 것”이 되어 버렸고 “사회심리학자로 사회 행동과정은 알지만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는 사람이”된(차재호, 1991, p.457) 까닭도 있지만 “우리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을 받아들인데 급급해 왔고 우리의 사회심리학을 정립하고 인식시키는 데는 소홀해 왔거나, 역량이 부족했던”(민경환, 1991, p.35) 것도 크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의 연구자들이 최소한 다음 세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 생활현상의 심리학적 연구시 현상이 갖는 문화권적 의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특히 그 현상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일때 이 문화특성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의미의 차이, 현상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테면 성취동기, 자존심, 자아실현, 자기정체감 등은 성취 지향적인 문화권과 관계 지향적인 사

회에서는 인식되어지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이같은 차이를 무시하고 서구 심리학자들이 쓰는 용어, 척도를 그대로 사용해서 한국 사회의 현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현상의 편린만을 파악하거나 왜곡의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논의는 비교문화 심리학의 방법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etic-emic’ 접근법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된 두방법의 조합법(combined etic-emic)의 정신을 살리자는 것이다(Triandis, Malpass, & Davidson, 1973). 즉 ‘emic’접근법은 현상의 문화권 특수적인 파악을 도모하므로 문화비교가 곤란한 반면, ‘etic’접근법은 문화권 간의 비교를 위해 보편적인 파악을 도모하므로 문화 특수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는 장단점을 각기 가지고 있다. 조합법은 범문화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또는 개념(etic constructs)을 선정하여, 각 문화권별로 그 개념에 대한 문화 특수적인 측정방법(emic measures)을 고안해서 각 문화권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문화비교에 사용되는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척도상에 나타난 차이가 갖는 의미가 불명확해 ‘etic’의 면모를 비교하기 곤란하다는 비판이 가능하지만(Brislin, 1976), Triandis와 Marin(1983)은 이 방법이 의미심장한 문화권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필자가 강조하고픈 것은 기존의 사회심리학의 대부분의 원리 및 개념들이 서구문화의 ‘emic’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리들을 한국에서 검증하거나, 한국인의 사회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적용할 때는 한국의 ‘emic’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전혀 한국적 emic성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특히 서구에서 개발된 성격, 태도, 가치척도를 빌어쓸 때 한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문항 조정을 하였다. 그러나 척도가 재러는 구성개념의 서구적 특성을 문제시하고 그것의 한국적 emic화를 검토한 적은 거의 없다.

둘째로 서구의 심리학의 “기본적” 발견들에 대해서 철저한 실증적 복제를 시도하되 문화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을 추가로 도입해서 복제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개인주의 문화의 원리가 마치 보편적 원리인 것으로 여기거나, 설명하기 궁색한 현상(이를테면, Frager, 1970의 예)을 짐작하게 될 것이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개인주의적 사고, 행동경향 또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보이는 집단주의적 행위는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인간은

## 참 고 문 헌

누구나 양면적인 행위를 보일 수 있다. 다만 언제 어떠한 행위가 나올 것인지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집단 소속의식이 현저하게 부각되는 상황이면 집단 정체감의 확보심리에 의해서 집단주의적 행위를 보일 것이며(Tajfel, 1978), 개인이 주변 상황과 유리되었거나, 개인의 독특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라면 개인주의적인 행위가 취해질 것임을 알 수 있다(Reykowski, 1990). 이것은 즉, 문화권의 비교를 실험 연구시 상황조작에 각별한 주의를 쏟아야 함을 지적한다. 한국인의 사회심리를 연구함에 있어서 연구자가 의식함이 없이 개인적인 단서만이 부각되게 상황을 구축하거나 개인적인 요소가 현저한 중속반응치만을 제시하는 경우 우리는 서구의 이론들에 대하여 그 '보편성'만을 계속 제공하는 우를 범하면서 많은 "법칙"을 발견해 놓고도 사회현상을 설명하지 못해 가우뚱 거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사회의 토착적 현상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현상들이 갖는 의미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지금까지는 논의로 하였으나 이제 이같은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 현상들의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사회심리를 이해하는 요체를 적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Pepitone과 Triandis(1987)는 사회심리학의 이론이 갖는 문화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심리학의 이론이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한, 의미의 궁극적 규정요소인 문화와 분리되어 범문화권적으로(universal) 적용되는 이론이란 있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사회적 행위에 있어서 개인차를 빚게하는 것이 무엇인지보다는 집단차를 빚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심리학자들이 이론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p. 495)을 주장하였다. Moscovici(1981; p.viii) 또한 "사회심리학은 자기문화의 과학이며 따라서 현대세계의 인류학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한국의 심리학자들에게 무엇을 연구해야 할지를 시사하는 점이 크다. 오늘날 사회심리학자들이 문화차이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국내에서도 한국인의 특성을 밝히고 다른 민족과 비교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누적되어질 때 비로서 한국인의 심리의 보편성과 독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사회심리학자들이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김성태(1990). 경사상과 한국문화.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특강), v-xvi.
- 김열규(1991). 맺히면 풀어라. 서울:서당.
- 민경환(1991). 사회심리학연구의 활성화 방안:역사형성에의 참여.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심리학연구의 활성화 방안. 중앙대학교. 11월.
- 박세영(1988). 분배자, 계산의 복잡성 및 분배자의 투입량이 보상 분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산업 및 조직, 1권, 1호, 91-106.
- 박덕후(1991). 국민학교 아동의 교우양상에 대한 도시농촌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봉순(1992). 아동의 갈등상황 대처 행동: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적용.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량·박세영(1989). 형평과 불형평에 따른 정서의 차이 및 불형평 해소책략. 한국심리학회지:산업 및 조직, 2권, 1호, 67-78.
- 사회심리학 용어집(1985). 사회심리학연구, 2-2.
- 안신호·김진·이상희(1991). 한국에서의 성취동기와 경제성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391-398.
- 오세철(1982). 문화와 사회심리이론. 서울:박영사.
- 장성수(1984). 분배정의와 절차정의가 보상의 불만족에 미치는 효과. 사회심리학연구, 2-1, 193-218.
- 장성수(1985). 비경제적 보상이 불형평 보수 분배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심리학연구, 2-2, 261-287.
- 장성수(1987). 집단 응집성이 분배원칙 선호에 미치는 영향. 사회심리학연구, 4권 1호, 403-437.
- 전병재(1986). 사회심리학. 서울:경문사.
- 정양은(1970). 감정론의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3), 77-90.
- 정양은(1981). 사회심리학. 서울:법문사.
- 정철수(1985). 사회심리학. 서울:법문사.
- 조공호(1990). 맹자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I):인



- 성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5-1, 59-81.
- 차재호 (1991).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의 전개. *한국심리학회지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455-461.
- 차재호 · 정지원 (1990). 친애욕구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보고.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5-1, 1-9.
- 최연희 · 최상진 (1990). 눈치기제가 유발되는 상황과 이유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293-302.
- 최상진 (1990a). 사회적 표상이론에 대한 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9-1, 74-86.
- 최상진 (1990b). 속담을 통해본 한국인의 심성에 대한 사회적 표상. *사회과학 연구*, 4집. pp. 133-176. 중앙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 최상진 (1991a). '한'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91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pp. 339-350. 서울 : 중앙대학교, 10월.
- 최상진 (1991b). 한국인의 토착사회심리학 구성과 그 임상심리학적 시사점. *한국임상심리학회 정기총회 발표*. 11월 2일.
- 최상진 (1991c).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초안). *사회심리분과회의 월례모임에 발표*, 12월, 연세대학교.
- 최상진 · 임영식 · 유승엽 (1991). 핑계의 귀인/인식론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399-410.
- 최상진 · 최수향 (1990a). 정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9-11.
- 최상진 · 최수향 (1990b). Constructing a Koreanistic psychology.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29-46.
- 최재석 (1987).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 개문사.
- 한규석 (1989). 대인행동에 미치는 연고주의의 영향. 문석남 외 (공저), *지역사회의 연고주의-혈연, 지연, 학연의 관계망과 실태*. 서울 : 일진사.
- 한규석 (감수중).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 한덕용 · 전경구 (1990). 정서과정설로서의 퇴계의 사찰론.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별책.
- 한성열 · 안창일 (1990). 집단주의와 나이, 교육, 결혼 및 주거 형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5-1, 116-128.
- Adams, J.S. (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 pp. 267-299) N.Y. : Academic press.
- Aronson, E., Brewer, M., & Carlsmith, M. (1986). Experimentation in social psychology. In G. Lindzey & E. Aron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rd. Ed. vol. 1, pp.441-486). NY : Random House.
- Austin, W. (1977). Equity theory and social comparison processes. In J. Suls & R. Miller (Eds.), *Social comparison processes :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pp. 279-305). Washington, DC : Hemisphere.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Berlin, I. (1976). *Vico and Herder : Two studies in the history of ideas*. N.Y. : Viking.
- Berman, J., Murphy-Berman, V., & Singh, P. (1985). Cross-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fairnes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6, 55-67.
- Berry, J. (1967). Independence and conformity in subsistence-level societ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 415-418.
- Bharati, A. (1985). The self in Hindu thought and action. In A. J. Marsella, G. DeVos & F.L. K. Hsu (Eds.), *Culture and self*. New York : Tavistock.
- Blumenthal, E.P. (1977). Models in Chinese moral education : Perspectives from children's book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5 (10-A), 6357-6358.
- Bond, M.H., Leung, K., & Wan, K.C. (1982). How does cultural collectivism operate? : The impact of task and maintenance contributions on reward distribu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3, 186-200.

- Brewer, M. (1979). In-group bias in the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86, 307-324.
- Briggs, J. (1970). *Never in ang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islin, R. W. (1976). Comparative research method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1, 215-229.
- Brown, P., & Levinson, S.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i, S.C. (1991). *Korean cultural self-understanding: An analysis of Korean proverbs*. Colloquium presented at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Feb. 26.
- Choi, S.C., & Choi, S.H. (1990a). "We-ness": The Korean Discourse of Collectivis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 Choi, S.C., & Choi, S.H. (1990b). The conceptualization of Korean tact, noon-chi. Proceedings of 10th International Congress for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CA: Sage.
- Choi, S.C., Kim, U., & Choi, S.H. (in press). Korean culture and collective representation. In U. Kim & J. Berry (Eds.), *Indigenous psychologies: Experience and research in cultural context*. Newberry Park, CA: Sage.
- Choi, S.H., & Choi, S.C. (1991). *Che-myun: Koreans' social face*. Paper presented at the colloquium series, Dep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Hawaii, January.
- Cohen, R. (1987). Problem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Egyptian-American diplomatic rel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1, 29-47.
- Doi, T. (1962). "Amae": A key concept for understanding Japanese personality structure. In R. Smith & R. Beardsley (Eds.), *Japanese culture: Its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Chicago: Aldine.
- Doi, T. (1986). *The anatomy of conformity: The individual versus society*. Tokyo: Kodansha.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Fiedler, F.E. (1978). Recent development in research on the contingency model. In L. Berkowitz (Ed.), *Group processes* (pp. 209-225). New York: Academic Press.
- Fiske, A.P. (1990a). Relativity within Moose ("Mossi") culture: Four incommensurable models for social relationships. *Ethos*, 18, 180-203.
- Fiske, A.P. (1990b). *Making up society: The four elementary relational structures*. New York: Free Press.
- Frager, R. (1970). Conformity and anticonformity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203-210.
- Fry, P.S., & Ghosh, R. (1980). Attributions of success and failure: Comparison of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Asian and Caucasian childre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1, 343-363.
- Gallimore, R. (1981). Affiliation, social context, industriousness and achievement. In R. H. Munroe, R.L. Munroe, & B. Whiting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human development*. N.Y. Garland Publishing Inc.
- Gergen, K. (1973). Social psychology as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309-320.
- Goethals, A. (1989, April). *Studies of false uniqueness*. Paper presented at the Research Center for Group Dynamics Semina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chigan.

- Goethals, G., & Darley, J. (1987). Social comparison theory : Self-evaluation and group life. In B. Mullen & G. Goethals (Eds.), *Theories of group behavior* (pp.21-47). N.Y. : Springer-Verlag.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 Doubleday, Anchor Books.
- Han, G., & Choe, S. (1990). Influences of family, region, and school network-ties on interpersonal intentions and the attitude-behavior discrepancy.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 Harkins, S.G., & Szymanski, K. (1989). Social loafing and group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934-941.
- Harre, R. (1984). Some reflections on the concept of "social representation." *Social Research*, 51-4, 927-938.
- Hayashi, c. (1988). *National character of the Japanese*. Tokyo : Statistical Bureau, Japan.
- Hess, R., Chin-Mei, C., & McDevitt, T. (1987). Cultural variations in family beliefs about children's performance in mathematics : Comparison among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ese-American, and Caucasian-American famil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179-188.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Beverly Hills, CA : Sage Press.
- Hollan, (1988). Staying "cool" in Toraja : Informal strategies for the management of anger and hostility in a nonviolent society. *Ethos*, 16, 52-72.
- Holtgraves, T., & Yang, J.H. (1990). Politeness as universal : Cross-cultural perceptions of request strategies and inferences based on their 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719-729.
- Homans, G.C. (1961). *Social behavior : Its elementary forms*. N.Y. : Harcourt Brace.
- Hook, J.G. & Cook, T.D. (1979). Equity theory and the cognitive ability of children. *Psychological Bulletin*, 89, 429-445.
- Iwao, S. (1988, August). *Social psychology's models of man : Isn't it time for East to meet West?* Invited address to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Scientific Psychology, Sydney, Australia.
- Izard, C. (1979). Emotions as motivations : An evolutionary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H. Howe, Jr. (Ed.) .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 1978*. Lincoln : Univ. of Nebraska Press.
- Jones, E.E. & Pittman, T.S. (1982). Toward a general theory of strategic self-presentation, In J. Suls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1), N.J. : Erlbaum.
- Kelley, H.H. & Thibaut, J. (1978). *Interpersonal relations : A theory of interdependence*. N.Y. : Wiley.
- Kim, K., Park, H.J, & Suzuki, N. (1990). Reward allocation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 A comparison of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cultur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3, 188-198.
- Lanham, B. (1988). Freedom, restraint, and security : Japan and the United States. *Ethos*, 16-3, 273-284.
- Lee, S., Ichikawa, W., & Stevenson, H. (1987). *Beliefs and achievement in mathematics and reading : A Cross-national study of Chinese, Japanese, and American children and their mothers*. Unpublished manuscript. Univ. of Michigan. Ann Arbor.
- Lee, S. (1990). The "Chong" Space : A Zone of Non-Exchange in Korean Human Relationship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

- 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 Lerner, M.J. (1977). The justice motive: Some hypotheses as to its origins and forms. *Journal of personality*, 45, 1-52.
- Leung, K. & Park, H.J. (1986). Effects of inter-cetional goal on choice of allocation rule: A cross-national stud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37, 111-120.
- Leung, K., & Bond, M.H. (1984). The impact of cultural collectivism on reward allo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793-804.
- Leung, K., & Iwawaki, S. (1988). Cultural collectivism and distributive behavior.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9, 35-49.
- Leventhal, G. (1976). *Fairness in social relationships*.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 LeVine, J., Moreland, R. (1986). Outcome comparison in group contexts: Consequences for the self and others. In R. Schwarzer (ed.), *Self-related cognitions in anxiety and motivation* (pp.285-303). Hillsdale, N.J.: Erlbaum.
- Marks, G. (1984). Thinking one's abilities are unique and one's opinions are comm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 203-208.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atsuda, N. (1985). Strong, quasi-, and weak conformity among Japanese in the modified Asch procedur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6, 83-97.
- Matsumoto, D. (1989). Cultural influences on the perception of emo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 92-105.
- Matsumoto, D., Kudoh, T., Scherer, K., & Wallbott, H. (1988). Antecedents of and reactions to emo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9, 267-286.
- McAdams, D. (1980). A thematic coding system for the intimacy mot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6, 413-432.
- McClelland, D. C. (1985). *Human motivation*. NY: Scott, Foresman and Company.
- Mehrabian, A. (197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affiliative tendency and sensitivity to rejec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0, 417-428.
- Miller, J.G. (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978.
- Mills, J., & Clark, E.S. (1982).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In L. Wheel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 pp.121-144). Beverly Hills, CA: Sage.
- Minoura, Y. (1975). *Value orientations found in British Colombian and Japanese schoolbook: The 1920's-the 1970'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Victoria.
- Misumi, J. (1985). *The behavioral science of leadership: An interdisciplinary Japanese research program*.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iyake, K., Campos, J., Kagan, J., & Bradshaw, D.L. (1986). Issues in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H. Stevenson, H. Azuma, & K. Hakuta (Eds.),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in Japan* (pp.239-261). New York: Freeman.
- Moscovici, S. (1981). Foreword. In P. Heelas & A. Lock (Eds.), *Indigenous psychologies:*

- The anthropology of the self*. London : Academic Press.
- Nakane, C. (1970). *Japanese societ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isbett, R., & Ross, L. (1980). *Human inference : Its strategies and shortcoming in social judgement*. N.Y. : Wiley. 한국석, 박상철 (공역), 인간의 추론 : 판단방략과 그 결함. 서울 : 성원사. (1991)
- Patchen, M. (1961). A conceptual framework and some empirical data regarding comparisons of social rewards. *Sociometry*, 24, 136-156.
- Pepitone, A. (1981). Lessons from the history of social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36, 972-985.
- Pepitone, A., & Triandis, H.C. (1987). On the universality of social psychological theo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8, 471-498.
- Pyszczynski, T., Greenberg, J., & LaPelle, J. (1985). Social comparison after success and failure : Biased search for information consistent with a self-serving conclu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1, 195-211.
- Reis, H. (1984). The multidimensionality of justice. In R. Folger (Ed.), *The sense of injustice :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N.Y. : Plenum Press.
- Reykowski, J. (1990). Collectivistic and individualistic orientation in the changing society : The case of Poland. Plenary address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 Riess, M., Rosenfeld, P., Melburg, V., & Tedeschi, J. (1981). Self-serving attributions : Biased private perceptions and distorted public descrip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224-f231.
- Ross, L.D. (1977). The intuitive psychologist and his shortcomings : Distortions in the attribution proces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0, pp. 173-220). New York : Academic Press.
- Sampson, E.E. (1975). Justice as equality. *Journal of Social Issues*, 31, 45-64.
- Sampson, E.E. (1977). Psychology and the American ide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1, 762-782.
- Sampson, E.E. (1978). Scientific paradigms and social values : Wanted-A scientific revol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332-1343.
- Sampson, E.E. (1987). A critical constructionist view of psychology and personhood. In H. Stam, T. Rogers, & K. Gergen (Eds.), *The analysis of psychological theory : Metapsychological perspectives* (pp. 41-60). N.Y. : Hemisphere Publishing Corp.
- Schlenker, B. (1974). Social psychology and sc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1-15.
- Schwartz, S.H., & Bilisky, W. (1990). Toward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 Extensions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78-891.
- Schwartz, S.H., & Smith, W. (1976). Social comparison and the inference of ability dif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1268-1275.
- Shikanai, K. (1978). Effects of self-esteem on attribution of success-failure. *Japane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 47-55.
- Solomon, R. (1984). Getting angry : The Jamesian theory of emotion in anthropology. In R. Shweder & R. LeVine (Eds.), *Culture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England : Cambridge Univ. Press.

- Stipek, D., Weiner, B., & Li, K. (1989). Testing some attribution-emotion relatio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09-116.
- Tajfel, H. (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N.Y.: Academic Press.
- Takata, T. (1987). Self-deprecatative tendencies in self-evaluation through social comparison. *Japane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7, 27-36.
- Tanaka-Matsumi, J., & Marsella, A. (1976). Cross-cultural variations in the phenomenological experience of depression: Word association stud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7, 379-396.
- Thibaut, J. & Kelley, H. (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Y.: Willey.
- Triandis, H.C., & Lambert, W.W. (1980).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6 volumes). Boston: Allyn & Bacon.
- Triandis, H.C. (1990).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i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 Triandis, H.C., Bontempo, R., Villareal, M.J., Asai, M., & Lucca, M.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C., McCusker, C., & Hui, C.H. (1990).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06-1020.
- Triandis, H., & Marin, G. (1983). Etic plus emic versus pseudoetic: A test of a basic assumption of contemporary cross-cultural psycholog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4, 489-500.
- Triandis, H., Malpass, R., & Davidson, A. (1973). Psychology and cultur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6, 355-378.
- Wada, M. (1988). Information seeking in self-evaluation of ability [Abstract]. In *Proceedings of Japanese Psychological Association Meeting*, 52, 222.
- Wagatsuma, H. (1956). *Japanese values of achievement: The study of Japanese inhabitants of three Japanese villages by means of T.A.T*.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Walster, E., Berseheid, E., & Walster, G.W. (1976). Equity theory: towardd a general theory of social interaction. In L. Berkowitz & E. Walster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9). N.Y.: Academic Press.
- Weiner, B. (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 548-573.
- Weisz, J.R., Rothbaum, F.M., & Blackburn, T. C. (1984). Standing out and standing in: The psychology of control in America and Japan. *American Psychologist*, 39, 955-969.
- Wheeler, L., Reis, H.T., & Bond, M.H. (1989). Collectivism-individualism in everyday social life: The middle kingdom and the melting po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9-86.
- Winter, D.G. (1973). *The power motive*. N.Y.: Free Press.
- Wylie, R. (1979). *The self concept: Vol.2.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Yang, K.S. (1982). Causal attributions of academic success and failure and their affective consequences. *Acta Psychologica Taiwanica*, 24, 65-83. (From 1985, 72, Abstract No. 13126)

Yang, K.S. (1986). Chinese personality and its change. In M.H. Bond (Ed.). *The Psychology of the Chinese people* (pp. 106-17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Yu, E.S.H. (1974). 'Achievement motive,

familism, and hsiao: A replication of McClelland-Winterbottom studie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5, 593A (University Microfilms No. 74-14, 942).

**Cultural Limitations of Social Psychological Theories :  
A Review for the Social Psychology of Korean People**

**Gyu-Seog Ha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o understand the social psychology of Korean people, researchers should examine cultural limitations of those psychological theories developed in the Euro-American culture. To substantiate this issue, I reviewed empirical evidences and arguments questioning the universality of psychological theories in seven domains : social exchange, emotional experience, social motives (N-Achievement, N-Affiliation, & N-Power), self-presentation, social comparison, attributional biases, and cognitive consistency. This review concluded that it is critical to delineate cultural representations of indigenous phenomena and to conduct social psychological investigation of them. Finally, few suggestions were made concerning the future research in the area.